

01 교회소식

만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02 생명의 말씀

초대장

만민중앙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 잔치에 목자와 성도들을 초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03 축하공연

“천국의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펼쳐진 축하공연 ‘초대장’의 은혜와 감동을 사진을 통해 느껴본다.

04 인터뷰

내가 체험한 ‘만민중앙교회’

교회 창립 3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해외 17개국에서 참석한 내빈들의 방문 소감을 들어본다.

# 만민뉴스

제656호 2014년 10월 19일 (주간)

##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천국 잔치 초대장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 해외 17개국에서 참석한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행사



만민중앙교회 창립 32주년 축하공연은 국내외 믿어 지·협력교회, 해외 17개국에서 참석한 내빈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천국의 소망을 뜨겁게 더해 주었다(축하공연 ‘초대장’ 피날레 중). 오른쪽 사진 위부터 ‘홀로코스트 후원 및 이스라엘 이민지원 연맹’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은 당회장 이재록 목사, 인사말을 전하는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 환담을 나누는 이스라엘 내빈들.

지난 10월 12일 오후 3시,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예배와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 행사에 국내는 물론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케냐, 페루, 중국 등 17개국에서 200여 명의 축하객이 참석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불어, 스페인어, 몽골어, 베트남어, 인니어 총 9개 언어로 동시통역됐다.

1부 기념예배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초대장’(요일 4:16)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초대장에 담아 주셨으며, 온 세상 모든 영혼이 천국 소망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결을 이뤄 초대에 응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교회 창립 32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참석한 내빈들로부터 받은 감사패를 소개했다. 이는 홀로코스트 후원 및 이스라엘 이민지원 연맹 회장 안드레 가지로우스키 박사와 크리스탈포럼(이스라엘 목회자협의회) 회장 다니엘 로젠 목사가 당

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사랑과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한 것이다.

2부 축하공연은 예능위원회(위원장 이희진 목사) 주관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의 맑은 호수 연회장으로 꾸민 본당 특설무대에서 진행됐다. 닥시오케스트라와 연합성가대, 예능팀 총 400여 명의 출연진과 150여 명의 스태프가 참여했다.

신동초 목사와 이수진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연회에 목자와 성도들을 초대하기 위해 보낸 초대장에 담긴 사랑과 행복을 표현했다. 창립 32주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찬양 8곡을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소품과 무용으로 표현해 소망을 더했다.

특히 우리가 장차 살아가야 할 곳에서 사용할 아름다운 천국 글씨를 볼 수 있었으며, 천사들이 연회에 초대받은 성도들을 환영하고,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과

무용으로 영광 돌리는 내용을 담았다.

공연 후 이재록 목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아버지, 주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고 영광 돌려나가며 마음에 평강과 기쁨, 말할 수 없는 행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라고 했다.

이날 야외에는 다양한 먹거리(남·여선교회, 가나안·청년선교회)와 기념사진 촬영소(디자인·샤론선교회)가 마련돼 성도들과 축하객들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한편, 10월 10일 금요일예배 1부에는 ‘목자의 성’(계 21:2)이라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에 이어 미국 영적외교단체 회장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가 인사말을 했다.

그는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박사님은 제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이 박사님의 성결의 복음을 통해서 제 삶이 변

화됐고 저와 함께하는 많은 일꾼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4년 전, 이 박사님께서 세계정세에 대해 예언해 주신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2부에는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3D 영상 ‘목자의 성’이 상영돼 성도들에게 믿음과 감동을 더했다. 이 영상은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아 성도들이 더욱 ‘온 영’을 사모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중심으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 주신 것이다.

이 밖에도 13일 월요일에는 해외 내빈들이 권능의 현자인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무안단물을 시음하고, 하늘보기 시간을 통해 영안이 열려 영의 세계를 체험했다. 또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무안단물에 침수함으로써 치료와 응답의 축복을 받았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16)

# 초대장

만삭이 되어 거동이 불편한 것도, 위험을 무릅쓰는 출산의 고통도, 자녀로 인한 근심과 고생도 개의치 않습니다. 때때로 해맑은 아이의 웃음소리에 모든 시름을 잊기도 하고 자녀가 자라는 동안 사랑을 주고받으며 삶의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녀를 뒷바라지 하려고 수고할 때도 “이렇게 너 때문에 힘들다.”고 탄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를 키우는 보람에 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난다.” 하지요.

이런 부모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사랑입니다. 온 우주에 빛과 소리로 존재하셨던 하나님, 큰 영광중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첫 사람 아담을 빚으셨습니다. 그와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 최고의 천국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영원한 행복을 주고 싶으셨지요. 그러나 이 영원한 행복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인간 경작이라는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 편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알고 우리나라는 사랑으로 부모를 대할 때야 서로 참으로 행복할 수 있지요. 사람은 어둠을 체험하지 않으면 빛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경작의 고통과 슬픔, 사망, 이런 것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지요.

이렇게 인간 경작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람만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랜 세월을 걸쳐 큰 인내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을 참으셔야 했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참혹한 나무 십자가에 내어 주셔야 했지요.

그러나 결국은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것을 바라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으로 경작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은 단지 구원받을 자녀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참된 자녀들을 얻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위해 예비하신 곳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화려한 저택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고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때로는 사진만 보아도 황홀하고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좋겠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도 곳곳에 있지요.

그러나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은 이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해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지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으며 함께 살자.’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2.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진정 믿는다면 이후로는 죄악에서 떠나 깨끗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지요.

오늘날 믿는다 하는 수많은 사람이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살아갑니다. 세상 정욕을 취하며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요. 하나님의 초대에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참여할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태복음 22장에서의 비유를 보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십니다. 혼인 잔치가 흥겹게 벌어지고 왕이 참석하신 손님들을 돌아보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이아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값이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혼인 잔치의 예복을 입는 것은 바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을 벗어나는 행함이지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변화시켰느냐에 따라 장차 천국에서도 들어갈 처소가 달라집니다. 더구나 새 예루살렘, 가장 좋은 천국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죄악을 다 벗고 성결되어야 하지요. 이와 더불어 온 집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저절로 마음에서 죄악이 버려지고 깨끗한 예

복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 죄와 싸워나가야 하지요. 물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나 이런 은혜와 능력을 받기 위해 자기편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야 하고 때론 금식과 작정 철야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악이 계속 발견돼 마음이 심히 곤고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힘써 노력하면 결국은 악이 버려집니다. 그만큼 더 깨끗한 예복이 준비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한 대로 이런 싸움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매우 큰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예비하시고 어찌하든 성결을 이루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32년 전에 만민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참으로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깊은 영계의 비밀을 알려 주시며 무수한 기사와 표적, 권능을 나타내시고 세계 선교도 창대히 이루 오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일을 이루신 32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초대받아 들어올 수 있는 참 자녀들을 만들어 오신 과정이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녀들로 새 예루살렘 성을 채우려는 것이 이 제단을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또 이 제단을 통해, 천국의 초대장을 전 세계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제단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은 이전 영광과 비할 수 없이 큼니다. 무수한 영과 온 영의 일꾼이 세계로 나아가 솔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속에 더욱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달려갈 것을 다짐하며, 만민을 통해 열방과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마태복음 22장에 어떤 왕이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사업이나 가정의 일 때문에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여기에서 잔치를 베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잔치는 장차 있을 천국 잔치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의 혼인 잔치를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도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외면하지만, 가난한 심령으로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좀더 특별한 초대장을 보내 주셨습니다. 단순한 천국 잔치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연회에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초대장’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 1.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인생에서 가장 감격적인 순간이 갓 태어난 자녀를 처음으로 품에 안았던 순간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랑 없는 눈으로 볼 때는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자체가 고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열차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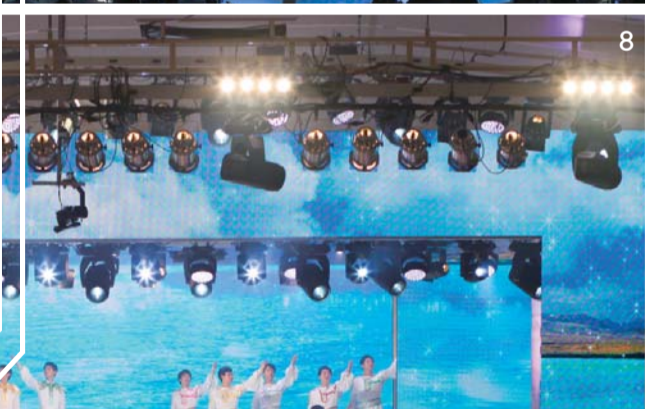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 창립 32주년 축하공연**  
**“INVITATION”**

1. 천군들의 찬양 - '영화로우신 이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와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에 들어온 성도들을 연회에 초대하시기 위해 천군들을 대동해 초대장을 보내시는 모습을 웅장하게 표현했다.
2. 초대장 - '환영'  
 천국 글씨로 써 있는 초대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보내신 것으로 사랑과 그리움, 고마움이 담겨 있다.
3. 천사장들의 찬양 - '감사 5'  
 목자의 이름으로 연회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표현했다.
4. 천사들의 무용 - '감사의 춤'  
 천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해 초대받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했다.
5. 초대받은 이들의 춤 - '아름다운 춤'  
 초대해 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무용으로 감사의 향을 올려 드렸다.
6. 찬양 - '아버지께 경배'  
 연회장에 모인 모두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렸다.
7. 찬양 - '크신 이름 찬양'  
 초대받아 연회장에 모인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높여 드렸다.
8. 피날레 - '목자의 노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목자가 드리는 고백을 통해 그 사랑의 깊이와 영혼들을 향한 소중한 마음이 전해졌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4. 10. 19~10. 25  
October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응답과 축복의 하나님 1~4
- 위로부터 난 지혜 2~6
- 요한일서 강해 18-22
- 창세기 강해 59-63 ■ 우리가 바라볼 것
- 치료와 응답의 공의 2 ■ 아버지 하나님
- 요한계시록 강해 35-36
- 믿음을 처방하시니 15-19

**GCN TV설교**

- 악을 미워하는 것 3 (이수진 목사)
- 게으른 자 1 (이미영 목사)
- 이 사랑 잊지 말기를 2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11-12 (이화선 목사)
- 읊기 강해 6 (신동초 목사)
- 탕자의 비유 1 (정구영 목사)
- 경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2 (김수경 목사)

**예능 프로그램**

- 즐거운 요리 18
- 옛날 옛적에 3
- 모두 드려요 15
- 흥겨운 소리 6
- English 7
- 만민지킴이 5
- 찬양 드려요 18
- 알콩달콩 어여쁜 율동 32
- 뿔도 튼튼 마음도 튼튼 38
- 뷰티풀 라이프 10
- 플로리스트 9
- 향기 17

**해외성회 및 교육**

- 인도 연합대성회 1
- 2014 지역장, 조장, 구역장 교육 3-4
- 회상 17

1577-2073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 “만민은 사랑이었습니다”



## “공연이 매우 감동적이었고, 마치 천국에 있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 다니엘 로젠 목사

만민중앙교회 창립 축하공연은 저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고,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이 감동적이고 아주 현대적이며 매우 독특했습니다. 특히 천국의 글씨를 보여 주셨는데, 이는 히브리어와 아주 흡사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 같은 공연을 보니 감동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 “만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저스틴 클라란스 목사

만민중앙교회와 이재록 박사님의 만남은 아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록 박사님을 뵈며 하나님의 사랑임을 느꼈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심을 보았습니다. 많은 증거를 보여 주시고 크신 권능을 갖고 계시면서도 아주 겸손하셨지요. 박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흐르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WCDN(세계기독교사 네트워크)이라는 훌륭한 사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단 의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전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 “생명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온두라스 에스테반 한달 JBN TV 사장

JBN TV는 온두라스 전역은 물론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칠레 등에 여러 교회의 말씀들과 기독교 뉴스 등을 위성과 케이블 TV, 인터넷으로 송출합니다. 특히 이재록 박사님의 설교를 매일 한 시간씩 방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있는 GCN 방송(세계기독교방송네트워크, 이사장 이재록 목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 “사랑으로 하나 된 목자와 양떼, 교회의 모델이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리 목사

이재록 목사님께서서는 성도들을 생명같이 여기시며 정성 다한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임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회자로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고, 저 또한 이러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한 가족 같았습니다. 서로를 챙기며 함께하는 모습이 무척 행복해 보였지요. 이는 이재록 목사님께서 성경에 입각한 진리 말씀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닷가의 잔물결이 단물로 바뀐 기적의 현장, 무안단물터 방문은 제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의 깊이 있는 기도생활과 신앙이 이러한 기적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 “권능의 기도로 양떼의 축복을 받아 손주들을 얻었습니다”

인도 라젠드란 다비드 '주님의 말씀' 기독교출판사 회장

저는 출판사뿐 아니라 인도 각 주에 18개의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지옥』 영문판을 출판해 인도 전역에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제 아들은 결혼 후 자녀가 없었는데, 2010년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해 이 목사님의 기도를 받은 뒤 예쁜 남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 세계 각국에서 모여 국가와 언어를 초월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 국내 지교회, 지정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회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안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말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6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서양만민교회 충북 괴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사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로22길 27,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영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순환대로 637, 2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사로 22, 은성빌딩 5층 ☎031)485-9143, 010-4201 207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9번길 43, 2층 ☎031)202-8480, 010-5526-574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